

312.695A

경계 증

1966

312

경계 증

1966

한국남자의노동생명표, 1966.

1973. 8. 22.

YR

150

통계청자료실



B000612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한국남자의 노동 생명표 1966

## 1. 서론

노동력 추세의 연구는 인구학적 견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 즉 경제학 사회학 등의 견지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어진 시점에서의 노동력 크기는 인구의 총계 또는 인구의 연령구조, 성별구조 기타 인구학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 되어진다.

노동력 통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자들은 생명표 작성의 기술을 이용하여 왔으며 이 논고 역시 사망율과 노동참가율을 결합하여 한국남자의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로서 노동자가 노동에 참가하는 년수를 알아보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010780

B 6122

노동생명표는 노동력 변동이 가져오는 의미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이 노동생명표는 또한 모든 사람이나 또는 노동에 참가한 사람의 주어진 연령에서 기대되는 평균 노동년수를 알아보는 지침이 된다. 뿐만아니라 이 표는 노동력으로서의 참가와 노동력에서의 이탈에 관한 연령별 비율 자료를 제공하여준다. 이상과 같은 자료는 노동력의 성장과 변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할뿐 아니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 예를들면 잔존 년수중에 기대되는 수입의 추계, 산업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배치 및 인구의 연령구조와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표는 노동력 수급문제를 계획하고, 노동의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유

용 자료가 된다.

노동생명표는 다른 일반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지난 기간의 사망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음이 제약조건임으로 이 표는 단일 사망률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노동에 참가하는 연수와 기타 전술한 문제 등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 2. 이용자료

노동생명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두가지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생명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을이다. 여기에 수록하는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행한 1966년 한국 간이생명표의 등원에서 발행한 1966년 인구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경제활동을 계산은 1955

년, 1960년, 1966년, 센서스 보고서와 1962년  
8월 이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보고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생명포가 보  
통 센서스 실시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을 감안하여  
최근 센서스 자료인 1966년 인구 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라 함은 14세 이  
상의 남자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취업자라 함은 임금이나 이익을 위하여 노동을 한자  
를 말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족 종사자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취업자 중에는 파업, 태업 질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일시 떠난자도 포함하며 실  
업자라 함은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자를 말한다.

### 3. 노동생명표의 구조

표 1은 공업화 정도에 의하여 구분한 각국의 평균 연령별 경제활동율과 한국의 경제활동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남자의 52.3 퍼센트가 농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준공업국가에 속하는데 경제활동율의 양상은 좀 색다른바가 있다. 연령 계급 15~19세의 경제활동율은 52.8 퍼센트로서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이것은 아마 높은 교육수준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며 노인층(65세 이상) 역시 30.1 퍼센트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율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유표사상에서 오는 노인들의 노동불참가로

로 이해된다.

한국 남자의 1966년 노동생명표가 표 2에 수록되어 있다. 각 연령 간격별 경제활동율이 칼럼 2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값은 일정한 연령계층의 총수에 대한 동 연령계층의 노동참가자의 비율(퍼센트)로서 1966년 인구 센서스 보고서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다.

각 연령계층의 시초연령 경제활동율이 칼럼 3에 기록되어 있다. 이 값은 칼럼 2에 기록되어 있는 각 연령 간격별 경제활동율의 평균으로서 예를들면 15세의 경제활동율은 10~14세의 경제활동율과 15~19세의 경제활동율의 평균이다.

칼럼 4, 6, 8과 10은 1966년 한국의 간이

생명표에서 옮겨 쓴 것이다. 칼럼 4는 생명표의

$l_x$  (생존자)로서 주어진 사망율에 의하여 가상

코호트(최초는 100,000) 내에서 일정한 정확한

연령에 도달할때 까지 살아남아 있는자를 표시한다.

칼럼 6은 생명표의  $5L_x$  (점지인구)로서 각 연

령 계급내에서의 살아 남아 있는 자를 표시한다.

칼럼 8은 생명표의  $T_x$  (총 점지인구)로서 이

$T_x$ 는 일정한 연령계급의  $5L_x$ 로부터 생명이 다

할때까지의  $5L_x$ 를 누적함으로써 구하여지며 가상

코호트내의 사람의 잔존 생명년수를 표시하여 준다.

칼럼 10은 생명표의  $l_x^0$  (평균수명)으로서  $T_x$

값을 더칭되는  $l_x$  값으로 나눈 값이며 이것은 각

연령에 있어서 생존자의 평균 잔존 생명년수를 표

시 한다

각 연령에 있어서 경제활동 생존자가 칼럼 5에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칼럼 4와 칼럼 3을 곱하여 얻어진 값이다. 칼럼 7은 경제활동 정지인구인데 이것은 칼럼 6과 칼럼 2를 곱하여 얻어진 값이다. 총 경제활동 정지인구(칼럼 9)는 칼럼 7의 값을 주어진 영역에서 부터 생명이 다할때까지 값을 합한 것이다.

평균 경제활동연령이 칼럼 11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생시 및 각 연령에 있어서 생존자가 가상 코호트(100,000)내에서 생존할것으로 기대되는 각자의 평균 경제활동 연수로서 칼럼 9를 칼럼 4로 나눔으로서 얻어진다. 출생시 및 각 연

령에 있어서의 평균 비경제활동 수명이 칼럼 12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칼럼 10에서 칼럼 11을 빼어줌으로서 얻어진다.

여기에 작성된 표에 의할것 같으면 한국 남자의 출생시의 평균수명은 59.7년이며 이중 36년을 경제활동에 소비하고 23.7년을 비경제활동에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단일 각 연령 그룹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가 칼럼 11에 계산되어 있는것처럼 실제의 경제활동을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각 세대의 (Per generation) 평균 노동수명을 정확히 나타내 주며 국제비교등에서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연령 그룹에 있어서 기대되는 노동수명의 추계나 노동으

로부터의 퇴장 (Retirement) 의 추계를 위하여서는 이 실제의 경제활동율은 이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마지막 노동참가자가 참가하기 이전의 연령에 있어서 총 노동생명은 미래에 참가할자의 노동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답등으로 현재 노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자는 장차 노동참가를 위한 연령중의 사람으로 보아 잔존 노동수명을 추계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의 노동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에 참가하기 이전의 연령 그룹에 최고점의 경제활동율 (maximum activity rate) 적용 함으로서 극복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계산이 표 3에 주어져 있다.

그림으로 란럼 13은 이 조정된 방법에 의하여 얻  
어졌으며 이것은 연령  $x$ 에 있어서 매 생존자에  
대한 평균 경제활동연수를 표시하여 준다. 여기 작  
성된 표에 의할것 같으면 연령 15세에서의 한국  
남자의 평균 잔존 경제활동연수는 44.6년이 되  
는데 이 계산의 타당성은 다음의 조건에 의한다.

1) 생존중 어떤 시기에 든지 노동에 참가하는 또  
든 사람은 경제활동율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이전  
에 노동에 참가하며 경제활동율이 최고점에 도달  
하기 이전에는 생존자가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  
지 않을것

2) 각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부터의 퇴장연령은 그  
가 경제활동상태로 들어온 연령과 독립적일것

3) 각 연령계층의 사망률은 경제활동인파 비경제활동 인이 꼭 같을것.

물론 어느 경우에도 이를 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상태는 기대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이 조건이 충족될것이 기대된다

이들 조건을 고찰하여 보면 첫째 조건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충족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결혼전에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후에 퇴장하고 결혼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처음 참가, 퇴장 그리고 재참가에 관한 추가자료가 요청된다.

둘째번 조건은 많은 국가에 있어서 남녀 공히

충분한 충족상태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보다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늦게 경제활동으로 퇴장하기 때문이다.

세째번 조건도 대부분의 경우 경제활동인이 비경제활동인보다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되는 어렵다.

단일, 경제활동인의 연평균 수입을 알 수가 있으면 각 연령에 있어서 각자의 기대되는 총 수입 (expectation of earning) 을 표 2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각 개인의 기대되는 소비를 계산할 수 있다.

4 노동에 참가, 퇴장 및 사망으로 인한 손실.

표 4는 각 연령 간격내의 경제활동 생존자수의

변동요소의 계산과정을 표시하여 주고 있다. 칼럼

2, 3, 4와 5는 표 2에서 옮겨쓴 것이다.

칼럼 6은 각 연령간격내에서 경제활동 생존자수의  
순 증가와 순 감소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칼  
럼 3에서 그다음 연령간격의 생존자 수에서 그  
이전의 연령간격의 생존자수를 빼어줌으로서 구하여  
진다. 이 표에서 이 칼럼 6은 다음의 두 요소  
로 분리 된다.

- 1) 칼럼 8에 기재된 경제활동인구의 사망자수
- 2) 칼럼 11에 기재된 경제활동으로의 순참가자수  
(+부호)와 순퇴장자수 (-부호)

칼럼 9와 칼럼 12는 칼럼 6에 주어진 위의  
총계 수자를 얻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여 (비례배분)

구하여졌다. 이들 숫자들은 비율로 환산하여 표 2  
의 칼럼 16, 18 및 20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표 2의 칼럼 15는 경제활동의 정지 인구  
(*economically active stationary population*)의  
사망자수를 나타내며 이것은 경제활동중의 인구의  
사망율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총 인구의 사망  
율과 어느 연령계층에 있어서나 같음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칼럼 17은 노동으로의 참가자수를 표시하고 칼럼  
19는 사망이외의 원인 즉 질병, 상해, 정년퇴직 등  
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손실을 표시하여 주고  
있다.

5. 1966년 경제활동인구 남자의 연중 손실주계

노동생명표 한가지 실제적인 이용편은 연령별 사망률과 퇴장률 (Setirement rate) 이 작성된 노동생명표와 같다는 가정하에서 실제의 경제활동인구로 부터 연중 노동으로 부터의 손실자 수 및 연중 참가자수를 추계하는데있다. 이것이 표5에 계산되어 있는데 실제경제활동인구(1966년 센서스에서 파악)와 노동생명표의 사망률 및 퇴장률을 곱하여 얻은 수자가 총 손실을 나타내 주며 이것은 사망에 의한 퇴장(칼럼 6)과 사망이외의 원인에 의한 퇴장(칼럼 10)으로 분류된다.

노동으로의 참가자수가 칼럼 8에 기록되어 있다.

1966년 경제활동인구 남자의 총 손실자수는 8만 5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52.6 퍼센트가 사망

에 의하여 47.4퍼센트가 사망이외의 원인 (질병, 상해, 정년퇴직)에 의하여 직업을 떠난 것이다.

연간 노동으로의 참가자수는 2십5만4천명 정도이다 (괄림 8) 경제활동인구 1,000명에 대한

조참가율 (Crude entry rate) 은 42.4이며 조퇴

장을 (Crude retirement rate) 은 6.8 그리고

조사망율 (Crude death rate) 은 7.5이다. 대체

계수 (Coefficient of replacement) 는 노동시장

에 있어서의 인구학적인 문제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1966년) 매 100

명 남자의 사망이나 기타 이유로 퇴역하는데 대하

여 297명이 새로 노동에 참가함을 표 5에서 계

산할 수 있다

## 6. 사망에 의한 경제활동 연수의 손실

경제활동 평균수명과 조경제활동연수 (gross ~~less~~ <sup>years</sup> of active life) 를 비교함으로써 평균 경제활동연수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다. 조경제활동연수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퇴장 (retirement) 하기 이전에 사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평균 경제활동 연수를 표시하는 반면 경제활동 평균수명은 퇴역하기 이전에 사망으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노동자도 포함하는 평균 경제활동 연수이다. 그러므로 조경제활동 연수는 다만 사람이 노동을 시작하는 나이와 퇴장하는 나이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경제활동 평균수명은 나이뿐만 아니라 사망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조경제활동 연수의 계산이 표 6에 표시되어 있다.

연령계층 70세 이상에 관하여는 85세 이상자의

노동력은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5년을 임

의로 선택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한국 남자의

조경제활동 연수는 1966년 경제활동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바에 의하면 70세 남자가 노동가능연수 60

년중 44.9년을 노동에 종사한다는 결론이 된다.

조경제활동 연수의 장점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관계

없이 연령별 경제활동 정도를 측정하는데 매우 편

리한 점이다.

조경제활동 연수와 경제활동 평균수명의 차이 즉

사망에 의한 노동연수의 손실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1) 조정제활동 연수 47.6년
- 2) 출생시의 경제활동 평균수명 31.0년
- 3) 사망에 의한 노동연수 손실(1~2) 11.6년
- 4) 10세시의 경제활동 평균수명 39.6년
- 5) 10세이후 사망에 의한 경제활동연수의 손실(1~4) 8.0년

## 7. 노동생명표의 결과

한국 남자의 노동생명표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 1) 10세 한국 남자의 노동수명은 39.6년이며 20세 남자 노동자는 46.5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이 중 노동에 참가하는 연수는 37.5년이 된다. 그러므로 그는 9년 정도를 퇴직후의 생활로 보내게 되는 셈이다

2) 10세남자 생존자의 조정된 경제활동 평균연수(표 2  
칼럼 13 참조)는 49년 정도이다.

3) 대부분의 남자 노동자는 15~19세 연령에서  
노동에 참가하며 1,000명의 비경제활동자에 대한  
노동 참가율은 25~29세 연령에서 가장 높으  
며 그율은 23.4이다.

4) 사망에 의하여 노동으로 부터의 퇴장은 10~14  
세 연령에서 가장 낮으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점점 사망에 의한 퇴장이 많아진다. 10~14세  
에서 사망에 의한 퇴장은 1,000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5인이 된다. 1966년 한국 경  
제활동 남자 인구의 총 손실은 8만 5천명 정도  
이며 그중 52.6퍼센트가 사망에 의하여 47.4

퍼센트가 퇴역 (Retirement) 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사망이 퇴역보다 주된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5) 계산된 조정제활동 연수는 70세의 남자가 경제활동 가능연수 60년중 449년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직장을 떠나는 데 100명의 남자에 대하여 297명이 직장에 새로 들어온다. 작성된 한국 노동생평묘에 의하면 매년 2십 5만 4천명 정도가 노동에 새로 참가하며 8만 5천명 정도가 직장을 떠난다 이것은 1십 6만 9천명의 남자에 대하여 새로운 직장이 매년 마련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 표 1 >

공업화 정도에 의하여 구분한 여러나라 남자의 연령별 경제활동률과 한국의 경제활동률 비교

연령	공업 국가	준공업 국가	농업 국가	한국 (1966)
15 ~ 19	72.4	70.3	78.4	52.8
20 ~ 24	91.5	91.8	91.6	81.1
25 ~ 34	96.7	96.2	96.3	94.6
35 ~ 44	97.6	97.1	97.5	95.7
45 ~ 54	95.9	95.9	96.3	93.8
55 ~ 64	85.6	88.9	71.6	76.8
65 이상	37.7	61.0	70.1	30.1

공업국가 ; 경제활동 남자의 35퍼센트 이하가 농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21개 국가의 평균.

준공업국가 ; 경제활동 남자의 35~59 퍼센트가 농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30개 국가의 평균.

농업국가 ; 경제활동 남자의 60 퍼센트 이상이 농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21개 국가의 평균.

이상의 평균비율은 1950년 이후의 최근 센서스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것임.

자 료 ; 유엔 *population studies* NO 33 권 page 12. 한국의 경제활동률은 1966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여 계산된 것임.

< 표 2. >

한국남자의 간이노동 생명표, 1966

연령간격	연령별 경제 활동률		생존자		연령간격별 정지인구		총 정지인구		평균수명		
	연령간격 경제 활동률	시초연령 경제 활동률	생존자 (Lx)	경제활동의 생존자(4x3)	정지인구 (5Lx)	경제활동의 정지인구 (6x2)	총정지인구 (Tx)	경제활동의 총정지인구	평균수명 (ex) (8 ÷ 4)	경제활동 평균수명 (9 ÷ 4)	비경제활동 평균수명 (10 -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 4	0	0	100.000	0	490.491	0	5.993.638	3.601.959	59.7	36.0	23.7
5 ~ 9	0	0	92.585	0	458.543	0	5.503.141	3.601.959	59.4	38.9	20.5
10 ~ 14	4.63	0	90.832	0	452.408	20.946	5.044.598	3.601.959	55.5	39.6	15.9
15 ~ 19	52.97	28.7	90.131	25.868	448.245	236.539	4.592.190	3.581.013	51.0	39.7	11.3
20 ~ 24	81.05	66.9	89.167	59.653	442.878	358.953	4.143.945	3.344.474	46.5	37.5	9.0
25 ~ 29	93.63	87.3	87.984	76.810	436.688	408.871	3.701.067	2.985.521	42.1	33.9	8.2
30 ~ 34	95.67	94.7	86.691	82.096	429.938	411.322	3.264.379	2.576.650	37.7	29.7	8.0
35 ~ 39	95.81	95.7	85.284	81.617	422.185	404.495	2.834.441	2.165.328	33.2	25.4	7.8
40 ~ 44	95.58	95.6	83.570	79.912	412.683	394.442	2.412.256	1.760.833	28.9	21.1	7.8
45 ~ 49	94.97	95.3	81.483	77.653	401.585	381.315	1.999.593	1.366.891	24.5	16.8	7.7
50 ~ 54	92.28	93.6	79.151	74.085	380.588	351.207	1.597.988	985.006	20.2	12.4	7.8
55 ~ 59	84.89	88.6	73.084	64.752	338.563	287.406	1.217.400	633.777	16.7	8.7	8.0
60 ~ 64	63.55	74.2	62.341	46.257	286.458	181.044	818.837	346.373	14.1	5.6	8.5
65 ~ 69	43.21	58.4	52.242	27.897	231.963	107.231	572.379	164.349	11.3	3.1	8.2
70 ~	17.77	30.5	40.543	12.366	360.416	64.118	360.416	64.118	8.9	1.6	7.3

〈표 2〉(계속)

연령간격	매생존자에 대한 연령 X에 있어서 평균 경제활동연수	연령간격내에서 경제활동인구수의 매년 변동요소							
		순증가수 (+) 및 순감소수 (-)	경제활동인구의 사망		경제활동으로의 순참가자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순퇴장자수		
			사망자수	경제활동인구/1,000 명에 대한 비율 (15÷7)	참가자수	비경제활동인구/1,000명 에 대한 비율 (17÷(6-7))	퇴장자수	경제활동인구/1,000명 에 대한 비율 (19÷7)	
1	13	14	15	16	17	18	19	20	
0 - 4	-	0	-	-	-	-	-	-	-
5 ~ 9	-	0	-	-	-	-	-	-	-
10 ~ 14	49.2	+ 25,868	32	1.5	25,900	60.0	-	-	-
15 ~ 19	44.6	+ 33,785	509	2.2	34,294	162.0	-	-	-
20 ~ 24	40.1	+ 17,157	960	2.7	18,117	215.7	-	-	-
25 ~ 29	35.6	+ 5,286	1,216	3.0	6,502	233.7	-	-	-
30 ~ 34	31.1	- 479	1,355	3.3	876	47.1	-	-	-
35 ~ 39	26.5	- 1,925	1,621	4.0	-	-	84	0.2	-
40 ~ 44	22.0	- 2,259	2,012	5.1	-	-	247	0.6	-
45 ~ 49	17.6	- 3,568	2,208	5.8	-	-	1,360	3.6	-
50 ~ 54	13.3	- 9,333	5,556	15.8	-	-	3,777	10.8	-
55 ~ 59	9.8	- 18,495	8,937	31.1	-	-	9,558	33.3	-
60 ~ 64	7.5	- 18,360	6,425	35.3	-	-	11,935	65.6	-
65 ~ 69	5.9	- 15,531	5,007	50.0	-	-	10,524	105.0	-
70 +	5.2	- 12,366	3,005	47.6	-	-	9,311	145.2	-

<표 3>

35세이하한국남자의 경제활동 생존자에 대한 평균 경제활동 잔존연수 계산 (1966)

연령간격	가상경제활동을	생존자 수		정지인구		총경제활동의 정지인구	개 경제활동 생존자에 대한 연령 x에 있어서 평균 경제활동잔 존연수 (7÷4)
		생존자 수 (Lx)	경제활동의 생존자 수 (3x2)	정지인구 (5Lx)	경제활동의 정지인구 (5x2)		
1	2	3	4	5	6	7	8
10 ~ 14	95.7	90,832	86,926	452,408	432,954	4,280,447	49.2
15 ~ 19	95.7	90,131	86,255	448,245	428,910	3,847,493	44.6
20 ~ 24	95.7	89,167	85,333	442,878	423,834	3,418,523	40.1
25 ~ 29	95.7	87,984	84,201	436,688	417,910	2,994,689	35.6
30 ~ 34	95.7	86,691	82,963	429,938	411,451	2,576,779	31.1
35 ~ ∞						2,165,828 <sup>외</sup>	

a/ 표 2 별첨 9 참조

한국남자의 5세 연령 간격내에서 경제활동 생존자수의 변동 요소계산 (경제활동 생명표). 1966

연령간격	생존자수		정지인구		연령간격내에서 경제활동 생존자수의 증가(+) 및 감소(-)	연령간격내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사망			연령간격내에서 경제활동으로의 순참가자수(+) 및 순퇴장자수		
	생존자수 (lx)	경제활동의 생존자수	정지인구 (5Lx)	경제활동의 정지인구		사망율 (100mx)	계산된사망자수 (7x5)	조정된사망자수	순참가율 및 퇴장율	계산된 순 참가자 및 퇴장자수	조정된 참가자수 및 퇴장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 14	90,832	0	452,408	20,946	+ 25,868	1.55	32	32	+ 28.7	25,968	25,900
15 ~ 19	90,131	25,868	448,245	236,539	+ 33,785	2.15	509	509	+ 38.2	34,246	34,294
20 ~ 24	89,167	59,653	442,878	358,953	+ 17,157	2.67	958	960	+ 20.4	18,069	18,117
25 ~ 29	87,984	76,810	436,888	408,871	+ 5,286	2.96	1,210	1,216	+ 7.4	6,463	6,502
30 ~ 34	86,691	82,096	429,938	411,322	- 479	3.27	1,345	1,355	+ 1.0	859	876
35 ~ 39	85,284	81,617	422,185	404,495	- 1,705	4.01	1,622	1,621	- 0.1	- 84	- 84
40 ~ 44	83,590	79,912	412,683	394,442	- 2,259	5.11	2,016	2,012	- 0.3	- 248	- 247
45 ~ 49	81,483	77,653	421,585	381,385	- 3,568	5.81	2,216	2,208	- 1.7	- 1,365	- 1,360
50 ~ 54	79,151	74,085	380,588	351,207	- 9,333	15.94	5,598	5,556	- 5.0	- 3,806	- 3,777
55 ~ 59	73,084	64,752	338,563	287,406	- 18,495	31.72	9,117	8,937	- 14.4	- 9,751	- 9,558
60 ~ 64	62,341	46,257	286,458	182,044	- 18,360	35.24	6,415	6,425	- 20.8	- 11,917	- 11,935
65 ~ 69	52,242	29,897	231,963	100,231	- 15,531	50.43	5,055	5,007	- 22.9	- 10,624	- 10,524
70+	40,543	12,366	360,416	64,118	- 12,366	112.48	7,212	3,005	- 30.5	- 21,985	- 9,311

< 표 5 >

한국남자의 사망과 퇴장으로 인한 연중 노동력 손실과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 경제활동상태로 참가로 인한 노동력획득의 계산, 1966

연령	인구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사망으로 인한 연중 경제활동인구의 손실		경제활동으로의 연중 참가		경제활동으로 부터의 연중 퇴장	
				경제활동인구 1000명에 대한 비	사망으로 인한 손실자수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명에 대한 출	연중참가자수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1000명에 대한 출	연중퇴장자수 (단위: 천명)
1	2	3	4	5	6	7	8	9	10
10 ~ 14	1,857.5	85.9	1,771.6	1.5	0.1	60.0	106.3		
15 ~ 19	1,323.7	698.6	625.1	2.2	1.5	162.0	101.3		
20 ~ 24	709.5	575.1	134.4	2.7	1.6	215.9	29.0		
25 ~ 29	1,006.9	942.7	64.2	3.0	2.8	233.7	15.0		
30 ~ 34	918.5	878.8	39.7	3.3	2.9	47.1	1.9		
35 ~ 39	696.1	666.9	29.2	4.0	2.7			0.2	0.1
40 ~ 44	638.3	610.1	28.2	5.1	3.1			0.6	0.4
45 ~ 49	545.4	517.9	27.5	5.8	3.0			3.6	1.9
50 ~ 54	458.5	423.1	35.4	15.8	6.7			10.8	4.6
55 ~ 59	363.9	309.0	54.9	31.1	9.6			33.3	10.3
60 ~ 64	246.0	156.3	89.7	35.3	5.5			65.6	10.3
65 ~ 69	177.8	76.8	101.0	50.0	3.8			105.0	8.0
70 +	188.0	33.4	154.6	47.6	1.6			145.2	4.8
10세 이상									
총 계	9,130.1	5,974.6	3,115.5		44.9		253.5		40.4

10세이상 한국남자의 조경제활동 연수의 계산표, 1966

연령간격	연령간격연수	남		비고
		연령간격별 경제활동률(퍼센트)	연령간격내에서의 평균 경제활동연수(3x2)	
1	2	3	4	
0 ~ 4	5	0	-	
5 ~ 9	5	0	-	
10 ~ 14	5	4.63	0.23	
15 ~ 19	5	52.77	2.64	
20 ~ 24	5	81.05	4.05	
25 ~ 29	5	93.63	4.68	
30 ~ 34	5	95.67	4.78	
35 ~ 39	5	95.81	4.79	
40 ~ 44	5	95.58	4.78	
45 ~ 49	5	94.97	4.75	
50 ~ 54	5	92.28	4.61	
55 ~ 59	5	84.89	4.24	
60 ~ 64	5	63.55	3.18	
65 ~ 69	5	43.21	2.16	
70 +	15	17.79	2.67	
총 계				
10 ~ ∞	75			